

2010년 일본 POD시장 7400대, 연평균 20% 성장 전망 -Yano경제연구소 시장동향 분석결과-

일본의 POD서비스시장 규모는 2006년 1,765억 엔으로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9년에는 2,447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POD대응기의 2006년도 출하대수는 약 4,000대이며, 연평균 15~20%의 성장을 계속하여 2010년에는 약 7,4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배경으로 한 아웃소싱 수요가 현재로선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POD 활용의 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변형(Variable) 인쇄 등 용도의 확대와 공급처(Vendor)의 제품/솔루션의 개발이 향후 POD시장 발전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MFP 10월호(390호)〉

일본 Yano경제연구소는 2007년 6월 ~2007년 9월 사이의 POD시장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까지의 시장동향을 분석·예측했다.

조사대상은 일본 내 POD대응제품 주요공급처(Vendor)(13개사), 주요 주문형(On Demand) 인쇄사업자(33개사)이다.

2006년도 일본의 POD서비스시장 규모는 1,765억 엔으로서, 인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2009년에는 2447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POD대응기의 2006년도 출하대수는 약 4,000대이며, 연평균 15~20%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약 7,4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컬러기기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흑백기기에 비해 신장률도 높다.

대형 복사기기 제조사를 중심으로 한 POD대응기기 공급처(Vendor)는 2007년에 리코(Ricoh)가 미국 IBM의 인쇄기부문을 매수하고, 캐논(Canon)그룹이 상업인쇄용 기종을 발매개시하는 등 일제히 프로용 시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POD시장이 성장하게 된 요인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의 명세서 인쇄, DM의 성명 인쇄 등, 대량 고속인쇄 수요의 확대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인쇄공장에 보안설비가 갖추어진 대형인쇄회사에 인쇄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종래의 소 부수(소로트), 단기 납기 대응의 주문형(On Demand) 인쇄가 인쇄업의 말단까지 침투하긴 했지만, 인쇄단가의 하락 등에 의해 사업성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POD시장 전망-용도의 다양화와 공급처의 제품/솔루션 개발이 포인트

개인정보보호를 배경으로 한 아웃소싱 수요가 현재로선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POD 활용의 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판촉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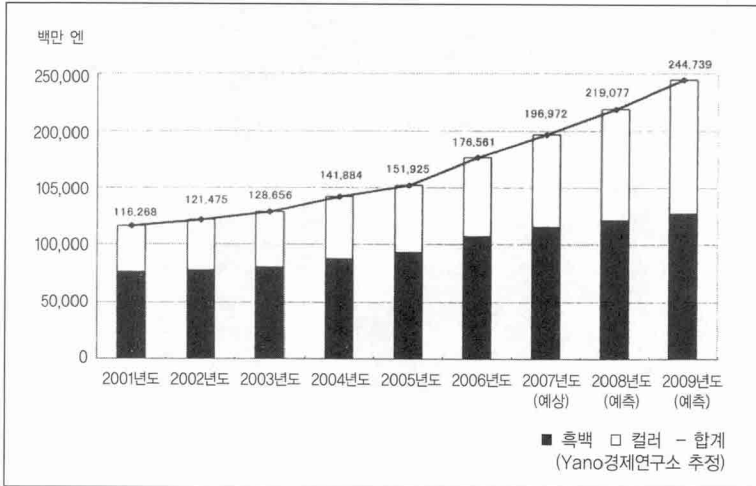


그림 1. 인쇄업에서의 POD서비스 시장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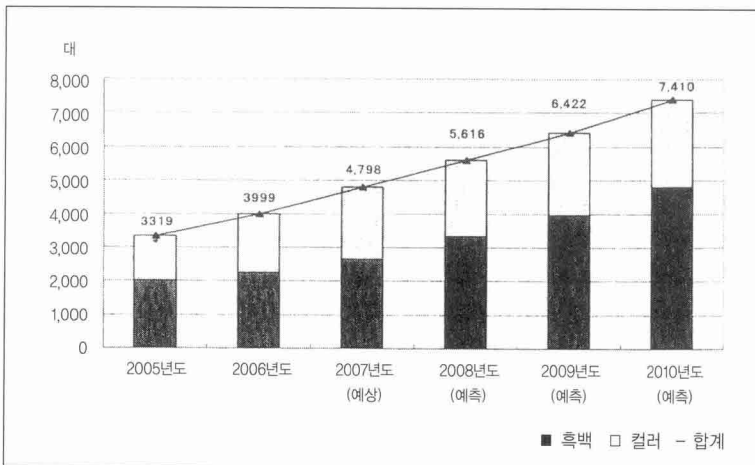


그림 2. POD 대응기의 시장 예측

그리고 신분야로의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처(Vendor)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IT기술을 활용한 설득력 있는 솔루션 제안 등, 서비스 면에서 차별화되어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지제록스(Fuji Xerox), 캐논(Canon), 코니카 미놀타(Konica Minolta), 리코(Ricoh)를 중심으로 공급처(vendor)의 시장점유율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나 통지의 가변(Variable)인쇄, 포토/앨범인쇄, POP/사인, 라벨 등의 포장인쇄, 자비출판 등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기술과의 친화성이 높은 POD의 특징을 활용한 기술로서 「트랜스프로모(TransPromo)」(Transaction 처리에 의한 명세서류의 인쇄에 개인용 광고를 넣는 방법)이나, 「WebtoPrint」(웹브라우저에서 발주를 받거나 인쇄를 지시하여 생력화(Laborsaving)와 납기단축을 실현하는 방법)가 개발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POD시장의 사업자들은 디지털기술을 모두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신 분야에서 시장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인쇄기의 고기능화가 가속화되어 POD의 용도 확대를 후원하고 있다.